

ЛЕГКО ЧИТАЕМ ПО-КОРЕЙСКИ

Ким Тонсик

ВОЛШЕБНЫЕ
КОРЕЙСКИЕ СКАЗКИ

*Перевод текста,
словарь и упражнения
Чун Ин Сун, И. Л. Касаткиной*

Lingua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АСТ

УДК 811.531(075.4)

ББК 81.2 — 93

К40

Ким Тонсик.

К40 Корейские волшебные сказки / Ким Тонсик; перевод текста, словарь и упражнения Чун Ин Сун, И. Л. Касаткиной — Москва : Издательство АСТ, 2021. — 160 с. — (Легко читаем по-корейски).

ISBN 978-5-17-121913-0

В сборник включены семь рассказов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писателя Ким Тонсика. Ким Тонсик неожиданно появился в мире корейск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и в одночасье стал яркой звездой. Он начал карьеру в онлайн-сообществе «Страшилка», где публиковал свои произведения, написанные в свободное от работы на заводе время.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Ким Тонсик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авторов в Южной Корее.

Рассказы Ким Тонсика емкие, остроумные и непредсказуемые. Их сюжет всегда динамичен и держит читателя в напряжении до самого последнего слова. За волшебным и фантастичным миром каждого рассказа кроется глубокий смысл, обнажающий пороки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щества.

Рассказы были отобраны и адаптированы для изучающих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ризнанн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Институте стран Азии и Африки МГУ им. М. В. Ломоносова и авторами известных пособий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Чун Ин Сун и Ириной Львовной Касаткиной.

УДК 811.531(075.4)

ББК 81.2 — 93

ISBN 978-5-17-121913-0

Original title: 세상에서 가장 요괴
(volume 1) by 김동식 (Kim Dong-Sik)

Copyright © 2018 by Korean Publishing
Marketing Research Institute

© Чун Ин Сун, Касаткина И. Л., пере-
вод, словарь и упражнения, 2020

© ООО «Издательство АСТ», 2020

차례 **Содержание**

부품을 구하는 요괴 Чудовищу требуется замена детали.	4
육수를 우려내는 요괴 Чудовище-повар готовит бульон.	23
가려운 곳을 긁어달라는 요괴 Почешите чудовищу живот!	51
이마에 손을 올리라는 외계인 Приложить руку ко лбу в знак страшного позора!	74
개미 인간, 베짚이 인간 Человек-муравей, человек-стрекоза.	91
여섯 개의 화살 Шесть волшебных стрел.	119
문신 Тату.	136

부품을 구하는 요괴

어느 날 아침 부품을 구하는 요괴가 나타났다. 요괴가 나타난 곳은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이었다.

3미터에 달하는 순백색 요괴의 몸체는 마치 서 있는 커다란 짚단같았다. 곧, 그 짚단 틈에서 하얀 팔 세 개가 쑥 튀어나왔다. 손바닥을 가진 팔 하나, 손바닥 대신 눈이 달린 팔 하나, 입이 달린 팔 하나. 세 개의 팔 중 눈과 입이 달린 팔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그러더니 하늘 위에서 입이 열리며 말을 내뱉었다.

[내 기계가 고장났어! 부품이 필요해!]

순간, 전인류의 머릿속으로 요괴의 목소리가 울렸다.

곧 요괴의 다른 손에 있던 눈의 눈꺼풀이 열렸고, 전인류의 머릿속에 요괴가 있는 허허벌판의 풍경이 떠올랐다. 눈을 감을수록 더욱 선명히.

너무나 놀라운 일에 전인류가 공황상태에 빠졌을 때, 요괴가 다시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말을 했다.

[바위 깎는 기계의 부품이 늪어 죽었어! 기계를 못 쓰니까 자꾸만 바위가 자라나서 내 앞마당이 불품없어졌단 말이야! 새로운 부품을 구해야겠어!]

혼란스러운 사람들은 요괴의 말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와중에 요괴는 짚단 속에서 바위 깎는 기계를 거짓말처럼 꺼내 놓았다. 인류는 그 기계라는 것이 머릿속에 보이자마자 깜짝 놀랐다. 건물 한 채만한 크기의 직립 보행 근육 덩어리가 시뻘건 몸을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들아! 내 기계의 허벅지에 꼭 맞는 부품이 필요해!]

요괴의 말대로 괴생물체는 한쪽 허벅지 부분이 행하니 파여 있었다. 사람들은 도대체 그게 왜 기계인지는 제쳐둔다 해도, 부품을 어떻게 구하겠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너희 인간들 중 하나가 내 기계의 부품이 되어줘야겠어!]

요괴의 말에 인간들은 아연실색했다. 인간을 부품으로 쓰겠다니? 설마 저 허벅지에? 사람들이 안정을 찾을 틈도 주지 않고, 손바닥이 달린 요괴의 팔이 세 번째 하늘 위로 올라왔다. 하늘 위로 올라온 요괴의 손이 손가락을 튕겨 딱 소리를 내는 순간!

“앗?”

“어어?”

전인류의 이마 앞에 파란 불빛이 생겨났다. 당황한 사람들은 손으로 불빛을 휘저어보고, 떨쳐내려 해봤지만 불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곧, 요괴에 의해 불빛의 정체가 밝혀졌다.

[내 기계에 딱 맞는 부품을 찾아야 하니까 말이야! 조건을 모두 통과한 인간을 부품으로 쓸 거야! 먼저,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안 돼! 한 65킬로그램 정도였으면 좋겠어!]

요괴가 다시 손가락을 딱 튕겼고, 전인류 중 65킬로그램이 아닌 사람들의 이마 앞에서 불빛이 사라졌다. 상황을 파악한 대다수 인류는 안도했고, 65킬로그램인 사람들은 울상을 지었다.

[키가 너무 작거나 커도 안 돼! 약 170센티 정도가 좋을 것 같아!]

딱 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의 파란 불빛이 꺼졌다. 불이 꺼져 이제 자기 일이 아니게 된 대다수 인류는 조금은 여유를 갖고 사건을 지켜보았다. 물론 아직 불빛이 꺼지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머리카락이 너무 길면 내 기계가 간지러울 것 같아! 대머리였으면 좋겠어!]

대머리가 아닌 사람들의 불빛이 꺼지자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손톱, 발톱이 너무 길어도 내 기계가 싫어하겠지?]

손발톱 관리가 안 된 사람들은 천만다행이라 생각했다.

[아, 맞다! 나이가 너무 많으면 또 늙어 죽겠지? 30년이 안 된 인간이었으면 좋겠어!]

또 다시 많은 사람의 불빛이 꺼졌고, 파란 불빛을 가진 인간들은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

[그래! 딱 좋아! 너희들이 내 기계에 딱 맞는 부품이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게 누굴까?]

순간, 하늘에 떠 있던 요괴의 손이 허공에서 사라지더니, 파란 불빛을 가진 인간들 중의 하나를 잡아채어 돌아왔다.

“으아악! 아악! 악!”

65킬로그램에 170센티, 대머리에 28살이었던 그는 비명을 질렀지만, 요괴는 그를 요리조리 돌려보며 만족스러워했다.

[아주 좋아! 얼른 가서 마당에 바위들을 깎아봐야겠어!]

요괴는 바위 깎는 기계와 인간부품을 가지고 사라져 버렸다. 동시에 전인류와 요괴의 링크도 끊어졌고, 남겨진 파란 불빛들도 모조리 꺼졌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류는 이 요괴 대사건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다. 시청률 100퍼센트의 실시간 뉴스를 본 것과 같았기에, 전세계 어디에서든 요괴사건을 화제로 얘기들을 해댔다.

“어이쿠, 놀래라! 그러저나 그 사람 진짜 재수없네. 어떻게 전인류 중의 한 명으로 그렇게 뽑혔대?”

“어떻게 사람을 부품으로 쓴대? 아무리 요괴라지만...”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일개부품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진짜 불쌍하다.”

“나 같으면 그냥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그런 괴물의 부품이 되진 않을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괴의 일개부품으로 전락한 그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듯 아침부터 요괴 때문에 전세계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오늘은 평일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에서 맡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익숙하

게 걸음을 걸었고, 익숙하게 다시 손을 놀렸다. 매일매일 하던 일들을 익숙하게 반복했다. 인간 하나가 사라져도 사회는 멀쩡히 돌아갔다.

한편, 정부와 언론매체들은 요괴의 흔적을 쫓아 허허벌판을 찾아나섰다. 그들은 요괴와 기계가 왔다 간 발자국을 찾아내어 취재했다. 곧, 요괴의 흔적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 한데 그날 저녁, 또 다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 부품이 되어 끌려갔던 그가 허허벌판 한가운데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요괴의 흔적을 연구 중이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모여들었고, 그를 향해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물었다. 그는 본인도 어안이 병병한지, 얼떨떨해 하며 말했다.

“... 퇴근이랍니다.”

“?”

퇴근이라니? 뜻밖의 소식에 인류는 황당함을 느꼈다. 기계의 부품으로 쓴다고 데려간 인간을 퇴근시켜주다니? 거기다가 더욱 놀라운 점은 그가 일당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글썄, 어른 주먹만한 금덩이를 일당이라며 받아 왔다.

“세상에!”

요괴의 부품이 된다는 것도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어머니의 양수에 들어가 있는 듯이 편안했다는 것이었다. 괴생물체의 허벅지에 끼워진 채 가만히 있으면 어느새 부품으로서의 일이 끝나고, 금덩이와 함께 집으로 돌려보내진다. 어 얼마나 좋은 직업인가?

온종일 화제의 중심이 된 그는 다음 날이 되자, 알아서 먼저 허허벌판으로 출근했다. 허허벌판에 나타난 요괴는 그를 반가이 맞이했다.

[오! 인간부품아, 와 있었구나! 그래! 어제 다 못 깎은 바위를 깎아야지! 어서 가자!]

요괴는 잽싸게 그를 낚아채 사라졌다. 그렇게 되자,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 180도로 바뀌어버렸다.

“그 사람 진짜 재수 좋다! 어떻게 전인류 중의 한 명으로 그렇게 뽑혔대?”

“어떻게 금덩이를 막 준대? 아무리 요괴라지만...”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요괴의 부품으로 살 수 있는 거야? 진짜 부럽다.”

“나 같으면 죽어도 그 부품자리 안 놓친다! 무조건 체중조절 해야지.”

이렇듯 아침부터 소란이 크게 일어났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도 평일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에서 맡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익숙하게 걸음을 걸었고, 익숙하게 다시 손을 놀렸다. 매일매일 하던 일들을 익숙하게 반복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제와는 달랐다. 사람들은 온종일 그의 얘기를 했다. 요괴의 부품이 된 그의 특별함에 비추어, 본인들의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처량해했다. 그가 부러웠고, 것처럼 특별해지고 싶었다.

“난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쥐꼬리만큼 버는데, 그 사람은 매일매일 편안히 금덩이를 벌어들여 거 아냐?”

“지금 전세계에서 제일 유명하지 않냐? TV 프로에서 서로 초대하려고 난리도 아니던데?”

“그 사람은 요괴 세계가 어떤지 다 구경할 수 있을 거 아냐? 얼마나 신비롭고 짜릿할까?”

요괴의 일개부품이 된 인간은 하루만에 전인류의 동경과 부러움을 샀다.

그날도 그는 무사히 금덩이와 함께 돌아왔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요괴의 부품으로 편안히 일했다. 심지어 주말에는 휴식까지 있었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길지 않았다. 주말 휴식을 취하던 그가 그만 차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다.

월요일 그를 찾아온 요괴는 짜증을 냈다.

[뭐야? 내 인간부품 꼴이 왜 이래? 몸무게도 줄었잖아? 에이! 새로운 부품을 구해야겠네!]

요괴는 또 다시 안테나처럼 세 팔을 뻗어 전인류를 스캔했다. 그러고는 첫날과 마찬가지로 조건에 맞는 사람 중 하나를 잡아채 왔다.

잡혀 온 그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가, 감사합니다!”

[음~ 딱 좋아! 새로운 부품으로 아주 적당해!]

요괴는 새로운 부품을 데리고 요괴세계로 떠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만약 부품인간이 조건을 잃는다면, 새로운 누군가가 요괴의 부품이 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몇몇 사람들이 요괴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키가 170센티인 사람들은 몸무게를 65킬로그램에 맞추려고 노력했고, 몸의 털을 다 밀고 손발톱도 깨끗이 관리했다.

그렇게 조건을 맞춰낸 수많은 인간이 아침마다 허허벌판 가까이에 모여들었다. 그리고 며칠 뒤의 아침.

[응? 인간부품 어디 갔어? 어어? 뭐야? 죽은 거야?]

두 번째 부품인간이 밤새 누군가에게 살해당하고 말았다. 인류는 생각했다. 조건을 맞춘 누군가가 그를 죽였을 거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요괴는 상관없었다.

[에이, 다른 부품을 구해야겠군! 어디 보자. 응? 뭐야? 왜 다들 이 근처에 모여 있어?]

심지어 사람들은 요괴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요괴님! 저를 부품으로 써주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더 부품에 어울립니다!”

“저는 눈썹까지 다 밀었습니다, 요괴님!”

[오잉? 인간들이 왜 이러는 거야? 이상하네? 음... 에이 뭐, 아무렴 어때? 어디 보자. 너로 정했다!]

요괴는 수많은 인간 중 하나를 낚아채 요괴세계로 사라졌다. 희비가 엇갈리며, 남겨진 수많은 인간이 아쉬워했다.

며칠 뒤.

[뭐야? 또 죽었어? 인간들아, 너희 혹시 지금 전쟁이라도 하는 중이야? 왜 이렇게 잘 죽어?]

또 다시 며칠 뒤.

[세상에! 인간은 너무 쉽게 죽는 것 같아! 이거 참. 이번엔 튼튼한 인간으로 뽑아야겠는데.]

며칠 뒤, 며칠 뒤, 며칠 뒤, 며칠 뒤...

[거참! 원래 인간부품은 일회용인가? 몇 번 쓰면 끝이야? 너희 인간들은 참 허약하구나!]

그렇지만 요괴는 걱정이 없었다. 그 일회용 부품이 되기를 원하는 인간들조차 너무나도 많았다.

[뭐, 아무렴 어때! 어차피 난 당장 쓸 수 있는 부품만 있으면 되니까! 보자, 오늘은 어떤 부품으로 골라볼까?]

“요괴님, 저를...”

“아뇨, 저를...”

“제가...”

170센티에 65킬로그램, 대머리에 손발톱 깨끗.

170센티에 65킬로그램, 대머리에 손발톱 깨끗.

170센티에 65킬로그램, 대머리에 손발톱 깨끗.

170센티에 65킬로그램, 대머리에 손발톱 깨끗.

170센티에 65킬로그램, 대머리에 손발톱 깨끗.

무수히 많은 똑 같은 인간들이, 똑 같은 부품이 되고자, 똑 같은 곳으로 몰려들었다. 기계의 부품이 되기 위해, 기계의 한낱 부속품이 되기 위해.

Слова и выражения к тексту

부품 запчасть, деталь

요괴 чудовище

허허벌판 равнина, просторное поле

달하다 достигать

순백색 белоснежный

짚단 сноп соломы

솟아오르다 выскакивать, выпрыгивать, подниматься (из-под чего-л.)

튀어나오다 *выскакивать, выпрыгивать (из чего-л.)*
손바닥 *ладонь*
달리다 *быть прикреплённым, прицепленным*
내뱉다 *выплюнуть; прост. говорить*
고장나다 *сломаться*
인류 *человечество*
눈꺼풀 *веко*
풍경 *пейзаж*
선명하다 *чёткий, ясный*
공황상태 *паническое состояние*
바위 *валун; скала*
깎다 *зд.: косить*
볼품없다 *иметь жалкий вид; выглядеть жалко*
꺼내다 *вытаскивать, доставать (из чего-л.)*
채 *счётное слово для домов и зданий*
직립보행 *прямохождение*
근육 *мускул, мышца*
덩어리 *1) ком; кусок; 2) масса,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시뻘꺾다 *насыщенно красный*
꿈틀거리다 *шевелиться*
허벅지 *бедро*
괴생물체 *неопознанное существо*
헛하니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е слово со значением полной пустоты*
파이다 *иметь вмятину*
제치다 *исключать*
아연실색하다 *перепугаться*
안정 *стабильность*
튀기다 *щёлкать*
휘젓다 *широко размахивать*
떨쳐내다 *отгонять, прогонять*
정체를 밝히다 *идентифицировать (кого-что-л.)*
딱 맞다 *как раз, в самый раз*
상황을 파악하다 *понимать (осознавать) положение дел*
안도하다 *успокаиваться*

올상을 짓다 бояться, расстраиваться
 여유를 갖다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спокойным
 일그러지다 перекашиваться
 간지럽다 чесаться
 대머리 лысый
 한숨 вздох
 손톱 ногти на пальцах рук
 발톱 ногти на пальцах ног
 관리하다 следить, ухаживать
 허공 воздуш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잡아채다 резко (быстро) хватать
 비명을 지르다 вопить, кричать
 링크 ссылка на сайт
 모조리 полностью
 시청률 телевизионный рейтинг
 실시간 뉴스 новость в реальном времени
 화제 тема разговора
 재수없다 невезучий
 뽑히다 быть избранным, отобранным
 일개 всего-навсего
 전락하다 низко опускаться (о положении и статусе в обществе)
 처지 положение
 나 같으면... если бы я был на месте (кого-л.)
 한바탕 масштабный; изрядный
 소란이 일어나다 возникать (о суматохе)
 평일 будний день
 말다 брать на себя (что-л.)
 익숙하다 привычный
 손을 놀리다 работать руками
 반복하다 повторять
 멀쩡하다 быть целым и невредимым; быть нормальным
 언론매체 СМИ
 쫓다 гоняться (за кем-л.), догонять

취재하다 готовить материалы для репортажа
 얼떨떨하다 быть в замешательстве, растерянный
 황당하다 прийти в замешательство (в данном слове имеется
 оттенок возмущения)
 일당 дневная оплата (за выполненную работу)
 양수 амниотическая жидкость
 끼워지다 быть вставленным между (чем-л.)
 가만히 있다 ничего не делать
 잽싸다 очень быстрый
 낚아채다 (резко) хватать
 태도 позиция; поведение
 놓치다 упускать (напр. удобный случай)
 무조건 безусловно
 체중조절 регулировать вес тела
 특별하다 быть особенным
 의미없는 бессмысленный
 처량하다 жалкий
 쥐꼬리만큼 벌다 зарабатывать совсем мало
 동경 восхищение
 부러움을 사다 вызывать зависть ср. 부럽다 завидовать
 심지어 даже
 휴식을 취하다 отдыхать
 행운 везение, удача
 차사고 автомобильная авария
 짜증을 내다 раздражаться
 꼴이 왜 이래? Что за ужасный вид!
 스캔하다 сканировать
 기대감 ожидание, надежда
 적당하다 быть в меру
 살해당하다 быть убитым
 접근하다 приближаться
 어울리다 быть к лицу
 눈썹을 밀다 брить брови
 희비 радость и горе

엇갈리다 *разминуться, разойтись*
 아쉬워하다 *сожалеть (относительно чего-л. упущенного)*
 세상에! *Ничего себе! Надо же!*
 전쟁 *война*
 튼튼하다 *быть крепким, здоровым*
 일회용 *одноразовый*
 허약하다 *слабый*
 한낱(=일개) *всего-навсего*
 아무렴 *어때! Какая мне разница! или Мне все равно!*

Задания

1. Ответьте на вопросы по тексту.

- 1) 요괴는 무엇이 필요했어요?
- 2) 요괴가 원하는 부품의 조건은 어땠어요?
- 3) 요괴에게 잡혀간 사람이 어떻게 돌아왔어요?
- 4) 사람들은 요괴의 부품이 된 사람을 왜 부러워했
어요?
- 5) 요괴의 부품이 된 사람들은 왜 빨리 죽었어요?

2. Выберите правильный вариант ответа к каждому из заданий.

- 1) 사람들은 왜 요괴를 무서워했어요?
 - a. 요괴가 금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 b. 요괴가 바위를 깎았기 때문이에요.
 - c. 요괴가 사람들을 해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 d. 요괴가 사람들을 일회용으로 쓰려고 했기 때문이
예요.
- 2) 사람들은 왜 요괴의 부품이 되고 싶어했어요?
 - a. 직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 b. 일도 쉽고 금덩이도 벌었기 때문이에요.

- c. 바위 깎는 일이 재미있었기 때문이에요.
- d. 요괴가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3. Раскройте скобки, выбрав из списка подходящий глагол и поставив его в правильной форме.

말다, 감다, 밝혀지다, 지르다, 파악하다

- 1) 인류는 상황을 (), 안도했어요.
- 2) 요괴에게 잡힌 남자는 비명을 ().
- 3) 눈을 () 허허벌판의 풍경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 4) 요괴에 의해 불빛의 정체가 ().
- 5)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에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괴사건을 금방 잊어버렸어요.